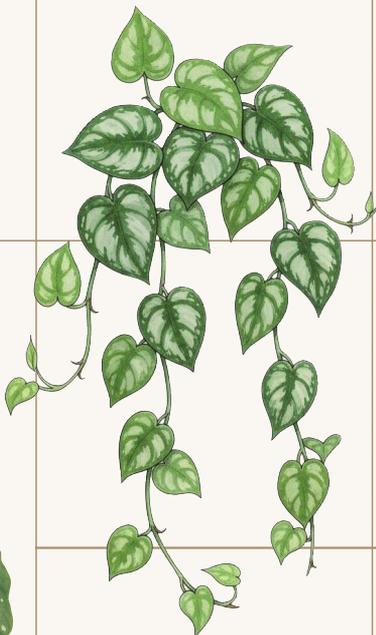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71-6410000-100123-14

나만의 반려식물 키우기

관엽식물편



하루의 심포, 반려식물과 함께

반려식물(Companion plant)이란?

인간과 서로 짝이 되어 교감을 나누며 살아가는 특정한 식물. 즉, 인간과 함께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식물

반려식물을 왜 기를까?

작은 초록이 우리의 일상에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반려식물은 삶에 심포를 주고, 마음을 돌보는 친구가 되어주죠.

정서적 안정과
따뜻한 교감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치유

생명을 돌보는
기쁨과 책임감

감성적인
인테리어 효과

반려식물, 초록 친구와 함께하는
조금 더 따뜻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반려식물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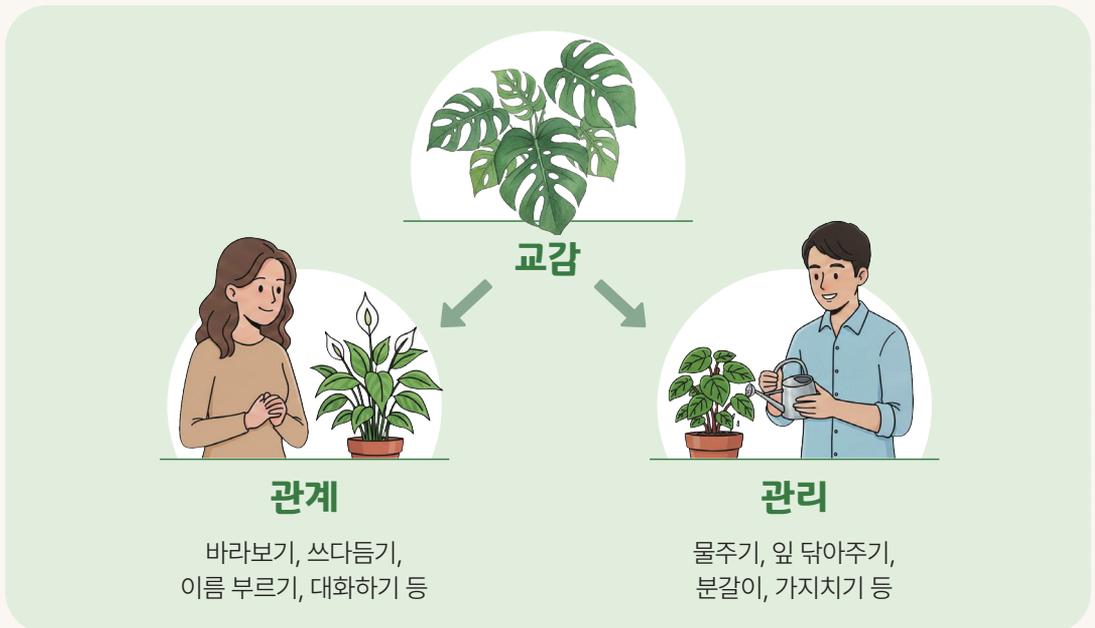
- 실내외 모든 식물이 반려식물이 될 수 있다.
- 반려식물은 우리의 생활공간에 실존하여야 한다.
- 먹기 위해 기르는 작물은 반려식물로 볼 수 없다.

* 기르는 과정에서 작물의 생리상 생성되는 열매 등을 먹을 수 있는 식물은 반려식물로 볼 수 있음



- 원칙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기르는 식물은 반려식물로 볼 수 없다.
- 식물이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 식물에 물을 주고 빛을 쬐어주는 등 식물이 원활히 생육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돌봐야 한다.

인간과 식물 간의 교감 활동



식물과의 소통과 교감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식물과의 진정한 반려관계가 완성됩니다.

공기를 정화하는 초록의 숨결, 관엽식물이 주는 작은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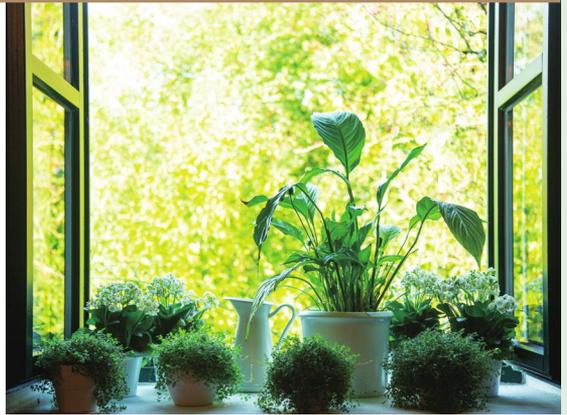
바쁜 일상 속

관엽식물은 말없이 우리의 공간을 맑고 편안하게 채워줍니다.

보이지 않는 유해물질, 미세먼지까지 조용히 잡아주며

깨끗한 공기로 되돌려주는 고마운 존재예요.





깨끗한 공기, 가벼운 마음

관엽식물은 잎과 뿌리로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자연스럽게 미세먼지를 가라앉혀 쾌적하고 상쾌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자연이 주는 산소와 음이온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 산소를 방출하고 음이온 생성에 기여하여 실내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촉촉하고 편안한 실내

증산작용을 통해 실내 공기의 건조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실내 습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소비자 맞춤형 반려식물 관리 방안

1 초보자형

첫 초록에게 인사를 건네는 시간

처음 만나는 반려식물은 작은 변화에도 감동을 줍니다. 매일 조금의 관심으로 잎을 바라보고 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루의 리듬이 생깁니다. 새순이 올라올 때,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추천식물

산세베리아, 홍콩야자, 스투키, 아글라오네마, 스키토마 등

관리방법

- ① 흙이 겹과 속까지 마른 후 물을 흠뻑 줍니다.
- ②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서 하루를 함께 합니다.
- ③ 초보자는 건조와 그늘에 강한 식물로 시작하는 것이 실패를 줄입니다.
- ④ 반려식물에게 대화를 건네보세요!

: 가끔은 말을 걸 듯이 식물에게 인사를 해보세요.

당신의 목소리와 관심은 식물에게도 좋은 자극이 돼요.

1~2주에 한번 잎을 닦으며 먼지를 제거하는 시간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식물과 교감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매일 작은 교감이 쌓이면
당신과 식물은 조금씩 더 가까워집니다.

2

직장인형

바쁜 하루 속, 초록의 심포

하루 종일 쌓인 긴장 속에서 작은 초록빛은 당신의 시선을 쉬게 합니다. 출근 전 물 한 잔을 건네는 순간, 식물은 조용히 당신의 일상에 안정을 선물합니다.



추천식물

테이블야자, 관음죽, 금전수, 스파티필름, 베고니아 등

관리방법

- ① 관수가 쉬운 화분 활용을 추천해요.
- ② 출근 전, 주말 물주기 루틴을 설정해요.
- ③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식물을 배치해요.

3

아이와 함께하는 가정형

아이와 함께 자라는 작은 정원

아이와 함께 식물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생명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작은 새싹이 돋을 때마다 아이는 기다림을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낍니다. 반려식물은 아이에게 자연과의 첫 만남을 선물합니다. 가족과 함께 키우며 정서를 나누는 시간, 소통의 매개체가 됩니다.



추천식물

페페로니아, 칼라데아, 파키라 등

관리방법

- ① 식물에 이름 붙이기: 아이가 주인의식을 느끼게 주세요.
- ② 체험형 관리법: 아이가 직접 물주기, 잎 닦기를 해요.
- ③ 성장 관찰 기록 활동(사진·그림 등)을 유도해요.
- ④ 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식물의 성장과정을 관찰해요.

실내 관엽식물 반려식물 추천

베란다 재배 적합 6종: 빛의 세기 4,500 lux 내외



칼라데아 세토사



칼라데아 인시그니스



칼라데아 오나타



스파티필룸 바리에가타



아글라오네마 시암오로라



아글라오네마 중국홍

거실 재배 적합 5종: 빛의 세기 3,000lux 내외



베고니아 스노우캡



칼라데아 마란타



칼라데아 뷰티스타



아글라오네마 엔젤



스키스토마 글로티스 왈리츠

계절별 관엽식물 관리 요령

봄



3~5월

생장 시작!
생기를 되찾고, 분갈이로
새출발 시기

분갈이 시기
뿌리가 딱 찼다면 분갈이 적기

물 주기 증가
온도 상승 → 물 주는 간격 단축
(1~2회 / 1주)

비료 시작
알비료 또는 물에 타서 주는 액체영양제

햇빛 조절
강한 직사광선은 피하고 밝은 간접광

통풍 확보
겨우내 닫힌 공간 환기 시작

여름



6~8월

생장 왕성
스트레스도 많음, 과습·고온·해충 주의!
수분 관리가 생명

물주기 빈도 증가
2~3회 / 1주, 과습 금물

고온 주의
30°C 이상 스트레스 → 오전 관수

습도 보완
에어컨 사용 시 습도 급격히 낮아짐
→ 가습·저녁 환기

병해충 관리
응애·진딧물 점검 → 잎 뒷면 확인

햇빛 차단
직사광선은 잎 타거나 무늬 손상

가을



9~11월

생장 둔화
겨울 대비 점검,
물·비료 줄이기 시작

물 주기 조절
기온 하강시 간격(1~2회 / 1주)

비료 중단
10월부터 중단, 뿌리 부담 줄이기

환기 주의
일교차 찬바람 차단

햇빛 조절
일조감소 → 더 밝은 곳으로 이동

병해충 관리
겨울 전 최종 점검·잎 닦기

겨울



12~2월

휴면기 또는 저생장기
과습 금지! 빛·온도·습도에
특히 민감한 시기

물 최소화
흙이 충분히 마른 후 물주기(2~3회 / 1개월)

보온 중요
15°C 이하 주의, 바닥 찬기운 차단

습도 유지
난방 건조 → 가습기, 잎 분무 병행

광량 보완
해 짧아짐 → 창가 근처 배치 / 식물조명 활용

비료 금지
생장 멈춤 상태 → 영양분 과다 시 뿌리
손상 위험

식물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식물에게 꼭 필요한 4가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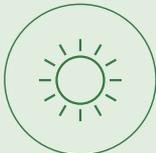
반려식물, 건강하게 자라려면?

식물도 사람처럼 빛을 받고 숨 쉬고 온기를 느끼며 자랍니다.
햇살 한 줄, 물 한 잔,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따뜻한 온도가 함께 어우러질 때
식물은 푸르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루의 작은 관심이
당신의 공간을 더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식물에게 꼭 필요한 4가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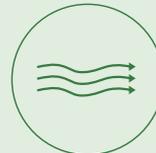
식물의 건강은 빛·물·공기·온도의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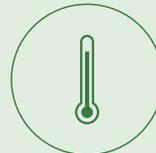
빛
에너지의 시작



물
생명의 순환



공기
호흡의 숨결



온도
생명의 온기

빛

식물에게는 하루를 여는 첫 인사입니다.



식물에게 빛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밝기와 식물이 쓰는 빛은 다릅니다.

룩스(Lux) 사람이 느끼는 광도(밝기)를 표현한 단위

PPFD 식물이 실제로 광합성에 사용하는 빛의 양
-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빛을 알려줍니다.

실내의 반사광이 있는
장소

3,000~5,000 lux
(약 45~100 $\mu\text{mol}\cdot\text{m}^{-2}\cdot\text{s}^{-1}$)

실내의 밝은 장소
창가

10,000~20,000 lux
(약 150~400 $\mu\text{mol}\cdot\text{m}^{-2}\cdot\text{s}^{-1}$)



Lux, PPFD를 측정하는 앱도 있어요.



창가나 밝은 실내는 대부분의 관엽식물이 좋아합니다.
하루 4~6시간 정도 자연광이 닿는 곳이면 충분해요.
너무 강한 직사광선은 잎 끝을 태울 수 있으니,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빛을 한 겹 부드럽게 해주세요.
햇살이 부족한 곳이라면 식물전용 LED조명을 활용해
'인공 햇빛'을 만들어 주세요.



Point 1



물은 흙 위에 골고루 부려주세요.

물주기는 흙이 안까지 잘 마르면 화분 바닥에서 물이 나올 정도로 흠뻑 줍니다. 흙 속의 공기층이 새로 채워지면서 식물 뿌리가 숨을 쉽니다.

Point 2



짖은 물주기는 오히려 해로워요!

흙 겉면만 마른 상태에서 자주 주면 뿌리가 숨 쉴 틈이 없어 썩을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흙을 2~3cm 속까지 눌러 마른 느낌이 들 때 물을 줍니다.

Point 3



화분 받침에 고인 물은 버려주세요.

고인 물은 노폐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받침에 고이면 벌레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돼요.

물은 바로 버리거나 닦아내어 청결을 유지해주세요.

Point 4



앞에 물을 뿌려서 습도를 높여주세요.

관엽식물은 습도가 높은 환경을 좋아하는 종류가 많고, 겨울에도 습도 50% 이상을 유지해야 해야 합니다. 생육기에는 맑은 날은 1회/1일 오전에 분무기로 앞에 물을 주어 앞을 촉촉하게 만듭니다. 앞에 물을 뿌려주면 오염이나 노폐물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공기

식물의 호흡이에요.



식물을 키울 때는 공기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식물도 사람처럼 숨을 쉽니다. 공기의 흐름이 멈추면 뿌리와 잎이 답답해지고 곰팡이와 해충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Tip.

가벼운 바람이 통하도록 환기를 자주 해주세요. 에어컨 직풍은 피하고, 통풍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합니다. 통풍은 병충해 예방과 광합성 효율을 높여 식물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바람이 드나드는 공간, 식물이 가장 편히 숨 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온도

온도는 식물의 계절이에요.



식물에게 온도는 하루의 리듬이자 계절의 숨결이에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식물에게 작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빛, 물, 공기, 그리고 온도, 이 네 가지 균형이 식물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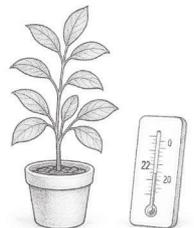
나의 반려식물

오늘은 식물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괜찮니? 잘 자라고 있니? 건강하게 자라렴!

Tip.

식물은 주간 20~25°C, 야간 15~18°C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자랍니다.



☑ 식물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쪼그라든다

토양의 수분이 부족하거나, 찬 공기에 노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관엽식물은 대부분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므로 실내 온도(18~25°C) 유지가 중요합니다.

토양 표면과 속의 수분을 확인한 뒤, 흠이 마르면 충분히 물을 주세요.

축 늘어진다

수분 과다로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거나, 수분 부족으로 세포 팽압이 떨어졌거나, 빛이 부족해 생장이 약해 졌을 때 나타납니다.

토양이 젖어 있다면 과습을 의심하고, 배수가 잘 되는 화분인지 확인해주세요. 잎이 연해지고 색이 옅어지면 햇빛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바싹 말라 있다

물 부족으로 인한 탈수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흠이 완전히 말랐더라도 뿌리가 살아 있다면 새 잎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마른 잎은 잘라내고, 토양을 적셔주듯 천천히 물을 공급해주세요.

잎이 떨어진다

잎이 초록색인 상태로 계속 잎이 떨어지는 문제는 환경이 맞지 않아 생기는 뿌리 썩음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통풍을 확보하고 흠이 젖어 있다면 물주기를 잠시 멈춰주세요. 잎이 누렇게 변하여 떨어진다면, 계절 변화나 생육주기의 자연스러운 낙엽 현상일 수도 있어요.

하얗게 색이 변한다

한여름 직사광선에 잎이 탔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탄 잎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 활용해 직사광선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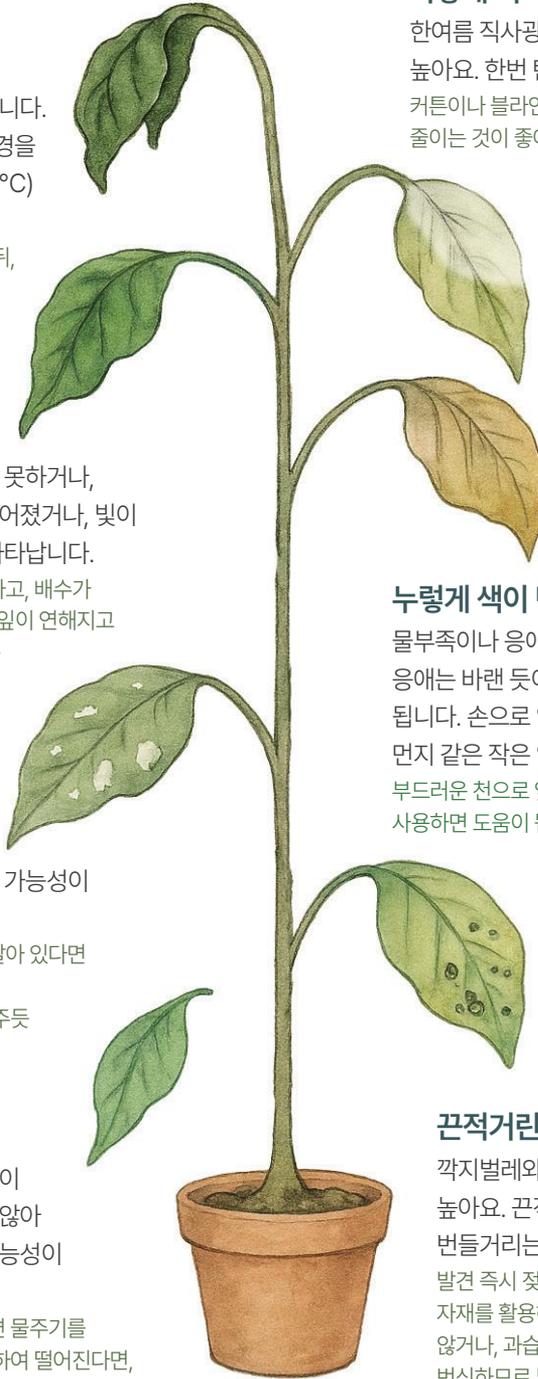
누렇게 색이 변한다

물부족이나 응애일 가능성이 높아요. 응애는 바랜 듯이 잎의 색이 빠져 누렇게 됩니다. 손으로 잎을 만져보면 거슬거슬하게 먼지 같은 작은 입자가 묻어요. 부드러운 천으로 잎을 닦아주고,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끈적거리다

각지벌레와 진딧물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끈적거리는 물질은 배설물로 번들거리는 것처럼 보여요.

발견 즉시 젖은 수건으로 닦고, 가정용 유기농업자재를 활용해 방제해주세요. 통풍이 잘 되지 않거나, 과습한 환경에서는 병해충이 쉽게 번식하므로 빛과 공기가 통하는 위치로 옮겨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잎 관리

잎 관리, 식물과 나누는 작은 대화예요.

◆ 마른 잎, 누런 잎을 잘라주세요

전체적으로 잎이 누렇게 되는 경우는 물 부족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을 주는 주기를 다시 점검해주세요.

마른 잎이나 변색 된 잎은 조기에 제거하여 건강한 새 잎이 자랄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 오염과 먼지를 닦아 깨끗하게 해주세요.

잎에 먼지가 쌓이면 광합성에 필요한 빛의 투과율이 감소하고 엽록소가 충분한 빛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어 광합성 효율이 낮아지고 생육이 저하됩니다. 잎 표면의 기공이 먼지에 의해 막히면 이산화탄소 흡수와 수분 증산작용이 제한되어 호흡 기능이 약화됩니다.



Tip. 주기적으로 잎의 앞면과 뒷면 모두 젖은 수건으로 잎을 닦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잎 닦기는 1~2회 / 월 맑은날 오전에 실시하면 좋습니다.



분갈이

초록의 계절을 준비하는 일

◆ 화분 고르기

관엽식물은 뿌리와 가지, 잎의 성장에 맞추어 분갈이하면서 길러주세요.

건강하게 기르려면 식물의 크기에 맞는 화분선택이 중요해요.

- 화분이 너무 작으면 뿌리가 잘 자랄 수 없으므로 큰 화분으로 바꿀 때는 한 단계씩 올려주세요!

- 키에 맞는 화분을 선택하고, 분갈이 후의 생육을 고려해주세요.



Tip. 식물의 키와 뿌리 비율이 균형을 이루는 크기의 화분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화분
크기

소형식물용
3~5호 화분
지름 9~15cm

중형 식물용
5~6호 화분
지름 15~21cm

대형 관엽식물용
7~8호 화분
지름 21~24cm

대형 수목용
9~10호 화분
지름 27~30cm

◆ 분갈이를 언제 해야 하나요?

분갈이는 식물이 새잎을 내고 성장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봄(3~5월)이 적기예요.
한여름에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화분의 크기와 식물의 키가
균형이 맞지 않을 때



화분 바닥으로
뿌리가 많이 튀어 나올 때



물을 줘도 흠에
잘 스며들지 않을 때



흠이 너무 빨리 마르거나
식물의 생기가 없을 때

Tip.

분갈이 권장주기는 생육이 왕성한 식물은
1회 / 1년, 생육이 느린 식물은 1회 / 2년이
적당합니다.

관엽식물 전용 흠이나 원예용 상토를
추천드립니다.

영양

비료는 식물의 영양제, 계절에 맞게 천천히 채워주세요.

◆ 시기는 봄에서 가을까지가 적기

식물이 활발히 자라는 봄~가을 사이가 비료 주기에 가장 좋고,
온도가 35°C 이상이면 흡수 효율이 떨어지므로 비료를 잠시
중단하고, 서늘한 시기부터 다시 시작해주세요.

◆ 분갈이 직후에는 비료를 주지 마세요

분갈이 과정에서 뿌리가 일부 손상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비료를
주면 뿌리 조직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분갈이 후에는 2~3주 정도 식물이 안정된 후 비료를 시작해주세요.





초록초록

Q&A

마음으로 듣는 답변

Q 구매 후 생기가 없어졌어요!

- A**
- 관엽식물은 환경이 바뀌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 밝고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 두고 관찰해주세요.
 - 기운이 없어보인다고 자리를 자주 바꾸고 매일 물을 주면 안됩니다.



Q 여름에 에어컨을 켜둔 채 두어도 될까요?

- A**
- 에어컨의 직풍이 관엽식물에 닿지 않게 바람의 방향을 조정해주세요.
 - 공기가 너무 건조하지 않게 관리 필요해요. 가습기로 습도를 조절하거나 저녁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주세요.



Q 잎 끝이 갈색으로 말라 버려요.

- A**
- 물이 부족할 확률이 큼니다. 흙의 건조상태를 자주 확인하고 수분상태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 물이 너무 많아도 식물뿌리가 호흡을 못해서 잎 끝이 마를 수 있어요.



Q 줄기에서 뿌리 같은 것이 자랐어요.

- A**
- 공중뿌리라고 하며, 공기 중 수분을 흡수하거나 몸을 지탱하는 등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뿌리상태가 건강한 지 확인해주세요.





ER SOC
SINCE 1968
23, 5th Avenue
NEW YORK
Best gift for ALL
IN 7 SIZES
Plain Socks
Ribbed Socks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나만의 반려식물 키우기』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반려식물 키우기

발행인 경기도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감 수 연구개발국장 이영순, 원예연구과장 김진영

집필인 김윤희, 이진구, 최란선, 황지은

발행처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031-8008-9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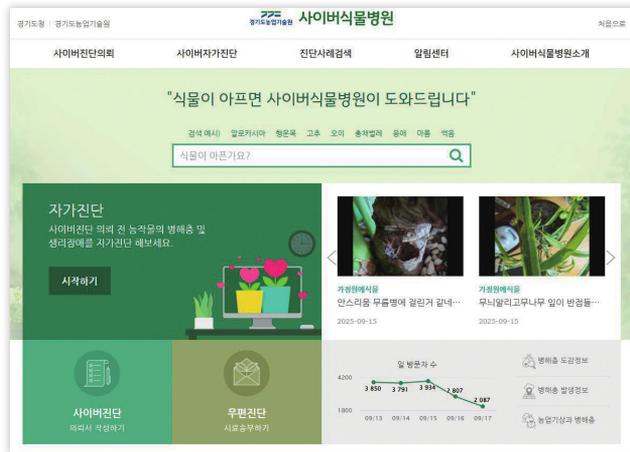
발행일 2025년 12월

인쇄처 디자인 봄(031-236-3883)

반려식물의 건강을 지키는 따뜻한 공간

경기도 반려식물 사이버식물병원 운영

반려식물을 키우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요?
클릭 한 번으로 만나는 **초록 닥터!**



식물 사진을 찍어 [사이버식물병원\(www.plant119.kr\)](http://www.plant119.kr) 에서
진단사례검색과 사이버진단의회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이
언제나 당신의 반려식물 건강을 지켜드립니다.